

■ 축산·사료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고곡가 시대에서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



오 상 집
강원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곡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마다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망실감은 나아가 축산업 및 사료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냉철해야 할 사업 판단의 예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위기는 곧 기회’라는 난국 경영의 정석에는 눈길을 주지 못하고, 그럴듯한 공여지책이 없을까 동분서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제시된 대책들은 위기 타개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뾰족한 대책을 찾거나 제시된 대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가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기하고, 고곡가 시대 우리나라 사료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대책이

라도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해 나가야 할 때다.

결국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대책이란 난감할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사소해 보이는 대책이라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결국은 언어 유희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기보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응 동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고곡가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료업계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II. 사료경영 외적 능력의 강화

1. 사료가격의 형성 역학과 위기대응 동력
배합사료의 가격이 원료가 되는 곡물을 비롯한 단미 원료사료의 가격과, 사료의 제조 및 가공비, 유통관리비에 적정 마진을 붙여 결정된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미 원료사료비용 이므로 이들의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히 배합사료 가격도 상승될 수밖에 없다. 즉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 인상폭이 결정되었

다면 소비자로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성이 서로 이해되는 경우, 고곡가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 되더라도 양축가와 사료산업은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축가와 사료공장이 서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대응책을 보다 더 기대하게 된다.

사료산업과 양축가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은 사료산업 및 축산업이 호황일 경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황이나 위기 상황 하에서는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지속 및 불황극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하에서는 누가 위기 타개 및 불황극복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그 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 즉 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기술, 또는 현장 경영 노하우보다는 위기 타개 의지와 생존을 위한 정신적 에너지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의 고곡가 위기상황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 시스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이나 EU,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양축가가 사료업계에 신뢰를 가지고 있고, 사료업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협력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축가가 사료업계의 출혈 희생과 업계 주도적 위기 처방만을 기대하지 않고, 상호 신뢰 속에 구축된 각자의 위기 타개 대책을 불만 없이 차분하게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료산업과 양축가 사이에는 이러한 협력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협력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료산업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축산업과 사료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양축가와 사료산업의 긴밀한 협력체계발동과 협력극복의지이기 때문이다.

2. 사료산업의 새로운 리더십 충전

특정 산업의 성쇠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의 성쇠도 이러한 변화의 산물임에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산업의 리더십 역량이다.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적·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예상되던 수준을 뛰어넘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 발전의 이면에는 시대적 변화를 앞서가는 사료산업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 이후 이제 시대와 환경은 다시 변화되었고, 사료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변화되었다. 즉 변화된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십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을 또 다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 축산업의 지속을 위해 양축가와의 지속적 상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양축가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 소모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비용절감에 비중을 두는 리더십
-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신념과 실력을 갖춘 리더십
- 사료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상실감에 빠져있지 않고, 차세대 주요 생명 산업으로서 성장산업이라는 확신을 가진 리더십

III. 고곡가 실질대책의 재강조

사료곡물의 가격이 상승할 때 마다 고곡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책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책의 대부분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실행된 경우가 지금까지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이 대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고곡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거나 어차피 혼자 힘으로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곡가 대책은 절묘한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료업계 전체가 힘을 합하여 가장 원칙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고곡가 대책을 위기 해소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료곡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사료공장이 즉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원료의 단가를 낮추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서 수없이 제시된 대책들이 대체 원료 사료의 개발, 사료곡물구매선의 다변화, 소품종 다량구매, 선물시장 활용, CBOT 전문가 양성 등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미 세계 2위의 사료곡물 수입국이 된 우리나라가 위에서 언급된 대책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적·장기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라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책 하나 하나에 대한 협력전략을 구축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 원료사료 구매 비용의 상승 여부를 떠나 배합사료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면 결국 줄일 수 있는 원료 외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조 가공비, 운송 및 유통비, 에너지 비

용, 이윤, 노임비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기술적 또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료비 중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료산업이 발전된 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은 원료 외적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좀처럼 개선되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온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지금과 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기비, 수증기 및 난방비, 운송유류비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데는 이제까지 거의 무신경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중첩되면서 사료공장의 에너지 관련비용도 중요한 전략관리 종목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 우리나라의 사료시장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업계 간 과다경쟁, 각종 브랜드 사료 및 주문 사료 까지를 포함하는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복잡한 유통구조 및 사료시장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경영구조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로 앞서서 질문만 던질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 또한 사료업계가 목표의식과 주도권

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의미가 없는 브랜드가 남발된다든지, 기별 사양방식을 비롯한 정밀 사양기술이 현장에서 무시된다든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고집을 바꾸어 나가는데도 사료업계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물의 품질 평가기준 중 사료수급 및 효율측면에서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료자원 경제 뿐 아니라 축산물의 건강 측면에서도 바꾸어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음을 이제는 과감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경제, 자원 비효율적인 사양방식도 사료업계가 선도하여 국가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맺으며

사료곡물의 가격폭등은 이미 다양한 사태를 통하여 예견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 사료업계는 이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곡가폭등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곡가 사태가 또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불안감까지 가중되어, 사료업계는 현재 유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료업계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까지 보여주었던 발전의지와 위기극복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한, 우리 사료산업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식량과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지속과 관련된 산업이 다가오는 시대의 성장 동력임은 물론, 발전의 중추가 되리라는 점은 꾸준히 예견되어 왔고, 최근 이 예견이 더욱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축산업,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료산업은 식량, 에너지, 그리고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 및 사료산업 발전의 잠재력과 외연은 더욱 증대되었다.

물론 곡가 급등과 같은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그동안 공고히 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늦었지

만 먼저, 지난 시절 위기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작금의 곡가에 남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음을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사료업계는 이 위기를 오히려 축산현장과 축산업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이보다 더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즉 위기에 강한 대응력을 갖추게 되어,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신발전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